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담당 : 유경근 대변인, 황필규 변호사 )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담당 : 이재근 공동상황실장, 백가운 국제팀장 )  
제 목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개최  
날 짜 2014. 12. 9. (총 6쪽)

## 보 도 자 료

###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내)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운,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해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의 한계점과 의의를 짚어보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해외 참사 피해자와 진상규명 전문가를 초청하여 12/9(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개최합니다.
3. 이번 국제워크숍에는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고와타 마스미,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다나카 미츠히코, 9·11 유가족인 콜린 캘리와 탈랏 함다니(영상통화로 참가),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 받지 않은 역사』 저자 필립 쉐논이 참석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박종대 진상규명분과 위원장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미국의 2001년 9·11 테러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 해외 참사 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무 국장 크리스토퍼 큐리는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감사원의 내부사정(12/6 통보)'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국제워크숍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션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션 2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 세션 3 <해외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평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참석자들의 발제문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1.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 붙임자료 2. 해외 참석자 프로필
- 별첨자료 1. 국제워크숍 자료집

■ 붙임자료 1.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 제목 :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시간	내용
9:30~10:00	등록
10:00~10:20	<b>환영사:</b>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10:20~11:00	<b>세션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b> 사회: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1. 특별법 제정운동 및 세월호 진상규명 평가 : 박종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 진상규명분과 위원장) 2.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의혹 : 이태호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
11:00~11:20	휴식
11:20~12:40	<b>세션 2.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b> 사회 :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1. 9·11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 : 콜린 켈리, 탈랏 함다니 (9·11 유가족,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 - 영상통화 2. 후쿠시마 진상규명,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고와타 마사미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12:40~14:00	점심식사
14:00~15:30	<b>세션 3. 해외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평가</b> 사회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 9/11, 카트리나, 후쿠시마, 빅토리아 산불1) : 백가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국제팀장) 2. 9·11 국가위원회 평가 : 필립 웨논 (전 뉴욕타임즈 기자,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 받지 않은 역사』 저자) 3.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 다나카 미츠히코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15:30~16:00	휴식
16:00~17:00	<b>종합토론</b> 사회 : 장완익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17:00~17:10	<b>폐회사:</b> 박래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주 최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 문 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gmail.com](mailto:sewolho416@gmail.com) 02-723-5051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링 크 : <http://sewolho416.org/3360>

---

1) 크리스토퍼 큐리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무 국장) 불참으로 발제 변경

## ■ 붙임자료 2. 해외 참석자 프로필

### ○ 콜린 켈리 (Colleen Kelly) \*영상 통화로 국제워크숍 참석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콜린 켈리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남동생 윌리엄 켈리 (William Kelly)를 잃었다. 그 후 다른 9·11 피해자 가족들과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9·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발족, 유가족 103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외 수천 명이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켈리는 9·11테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술과 강연을 하며 반전평화의 '전령사'로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고 있다.

### ○ 탈랏 함다니 (Talat Hamdani) \*영상 통화로 국제워크숍 참석

탈랏 함다니는 1979년,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미국에 온 지 22년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아들 살만 함다니(Salman Hamdani)를 잃었다. 켈리와 마찬가지로 함다니도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가족회(9·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에서 활동하고 있다.

### ○ 고와타 마스미 (木幡ますみ),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12/7 저녁 입국 ~ 12/11 오전 출국)

고와타 마스미는 35년 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옆 오오쿠마정으로 시집을 왔다. 살던 곳은 오오쿠마정에서도 산지 쪽으로, 농사를 짓고 보습학원을 경영하면서 세 아이를 키웠다. 3/11 참사 이후에는 후쿠시마현 서부인 아이즈와카마츠시 임시가설주택에 살고 있다. 오오쿠마정의 방사능 오염은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일본 정부는 주민들을 원래 살던 장소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 고와타 마스미는 이와 같은 귀환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도쿄전력에 사고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후쿠시마원전소송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 다나카 미츠히코 (田中三彦),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12/8 저녁 입국 ~ 12/10 저녁 출국)

다나카 미츠히코는 1943년 생으로 도쿄공업대학 생산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에서 1977년까지 파브코크히타치 주식회사에서 원자로압력용기 설계 등의 일을 했다. 1977년부터는 저자로 활동하며 『핵발전소는 왜 위험한가』, 『마치 핵발전소 따위 없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사고방식』 등의 책을 발표했고, 번역서로는 『터닝포인트』, 『데카르트의 과오』, 『어쩌다』 등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후에는 일본 국회의 후쿠시마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 ○ 필립 쉐논 (Philip Shenon),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 저자 (12/8 저녁 입국 ~ 12/10 저녁 출국)

필립 쉐논은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 The Commission: The Uncensored History of the 9/11 Investigation』의 저자다. 20년 넘게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를 출입했다. 더불어 해외 특파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분쟁 지역과 60개 넘는 국가를 담당해왔다. 현재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다.

